한글세대에 맞춰 풀이한 우리의 고전

정약용·박지원·정철 등의 산문집… 누구나 읽기 쉽게 한글화 작업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을 쉽게 풀이한 중국의 고전들을 접하고 인용하며 그것이 동양정신의 정수인 양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훌륭한 한문고전들이 있다는 사실은 낯설다. 역사책에서 보았던 무수한 한문학자들과 문학가들이 남긴 훌륭한 저서들의 제목을 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책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우리고전의 한글화 대중화 작업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얼마전부터 몇몇 출판사에서 우리 한문고전을 현대감각에 맞게 번역한 책들을 내놓아 반가움을 더한다. 이들 책은 아직 목록이 한정돼 있고 접근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중국 고전에 매몰된 독자들의 관심을 우리 고전으로 이끄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선도적인 기획으로 평가돼 의의를 더한다.

중국고전만 접하던 우리에게 한국고전은 아직 낯설다. 최근 들어 한글세대에 맞게 쉽게 풀이한 우리의 고전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동양정신의 진수를 맛볼 기회를 새삼 제공하고 있다. 방대한 우리 고전의 자산에 비해 우리말 번역작업의 미흡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한글세대에 맞춘 우리말 고전 번역본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현대감각에 맞게 번역한 우리 고전

한국고전을 한글세대에 맞게 쉽게 풀이한 책으로 우선 한양(대표 홍승대)이 펴낸 '한양 고전산책' 시리즈를 들 수 있다. '한글세대를 위한 우리 옛 글'이라는 부제를 단 이 시리즈는 현재 목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인 허경진 교수의 역량이 돋보이는 기획물. 《다산 정약용 산문집》을 필두로 《연암 박지원 산문집》, 유길준의 《서유견문》, 황현의 《매천야록》 등 8권이 출간됐고, 《삼국사기》《징비록》《이규보 산문집》 등이 나올 예정이다.

원전에 충실하되 한문고투를 말끔히 벗어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시대를 앞서거나 당대의 모순을 철저히 인식했던 저자들의 치열한 시대인식과 때때로 드러나는 사사로운 감정의 미세함까지 포착해 감동을 더한다. 한글세대의 감각에 맞는 유려한 문체와 역자가 작성한 해설과 연보를 실어 이해를 돕는다.

홍신문화사(대표 지윤환)의 '한국고전문학선'(전영진 편저) 시리즈 역시 우리 고전을 새롭게 번역한 것.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절정이라 일컬어지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훈민가〉 등과 시인으로서의 다산 정약용의 뛰어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다산의 시편들을 묶어 펴낸 1권《송강가사·다산시선》에 이어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인로와 이제현의 수필이자 사서(史書)로도 손색이 없는 《파한집·역옹패설》, 그리고 김만중의 《구운몽》,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총 10권을 출간했다.

고문과 현대문을 대역해놓아 비교할 수 있게 하였고 고문과 한문의 난해한 부분은 자세히 주석하였고 어원의 출전과 배경도 설명했다. 각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감상요령도 곁들여 충실한 이해를 돕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를 비롯하여 〈국순전〉〈죽부인전〉 등의 전기소설, 〈춘향전〉〈심청전〉〈흥부전〉 등의 판소리계소설, 〈양반전〉〈허생전〉 등의 풍자소설과 가사, 수필 등을 목록에 포함하고 있는 보성출판사(대표 정진태)의 '한국고전시리즈'(전10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고전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데 주력했다.

쉽고 재미있게 풀이

출판사 서해문집(대표 이영선)이 '21세기 고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시리즈도 우리 고전의 현대화 작업의 결과물이다. 〈삼국유사〉를 우리말로 옮긴《일연과 함께 떠나는 삼국여행》(김혜경 옮김)이 첫권이고 얼마전《실학산책》(상·하)이 나왔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유형원의 〈반계수록〉 이익의 〈성호사설〉 최한기의 〈명남루총서〉 등 익히 들어본 바 있는 조선시대 실학자 19명의 저서들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풀어서 번역했다.

어색한 한문투를 벗어난 문장과 참신한 편집이 돋보이는데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한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우리 민족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 기술문명에 대한 혁신적 사고 등을 통해 우리의 현 상황을 되새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이러한 대형 기획외에도 우리 한문고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참신한 체제로 꾸민 책이 적지 않은데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가장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어 다산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밖에 한국의 한시를 번역한 책도 여러권 찾아볼 수 있는데 《옛 시정을 더듬어》(손종섭 편저, 정신세계사),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불어와》(김도련·정민 공편, 교학사) 《한국의 한시》(김달진 역해, 민음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조선 숙종때의 인물인 홍만종이 당대의 시화들을 모아 엮은《시화총림》(윤호진·허권수 옮김, 까치)도 눈길을 끄는 책이다.

필자개발과 목록의 다양화 과제

최근 들어 대중을 위한 고전 국역사업에 활기를 띠는 현상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같은 현상은 논술고사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우리 고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비롯,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자산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커져 이 분야에 일정한 독자층이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출판사들의 기획과 이에 부응할 만큼 문장감각과 한문에 대한 조예를 아울러 갖춘 필자들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것도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대한 우리 고전의 자산에 비하면 현재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대해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이우성 회장은 "아무래도 학문적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야 대중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고전국역 사업이 기본적인 문헌들 번역에도 마음이 바쁜 실정임을 밝힌다. 문장감각과 한문에 대한 조예를 갖춘 저자들이 대중용 고전 국역사업에 힘을 쓸 겨를이 없었던 셈이다.

이러한 작업이 전적으로 출판사나 역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대중용 고전 국역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힌다. 고전 국역을 총괄하여 목록을 발굴, 선정하고 이루어진 작업을 평가해내는 일정한 기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분야 출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지적이다.

——박남정 기자